

‘여순사건 7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린다

내일 여수시청 회의실서 개최 정근식 전 진화위 위원장 발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순사건 75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의 2년간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활

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여순사건의 진상을 살펴봄으로써 여순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근식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한국전쟁의 유산과 이행기 정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기조발제에 이어 총 4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의 ‘제14연대의 창설과 변화-지워진 연대(聯隊)를 찾아서’, 김인덕 청암대학교 교수의 ‘일제강점기 전남 동부지역 민족운동-여수, 순천, 광양, 구례의 경우’, 광경상 연세대학

교 건축학부 교수의 ‘파괴와 재건-여수 도시공간의 굴절과 개발’ 등이다.

이어 각 주제별 토론에는 김종민 제주 4·3진상규명위원,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 강성호 전남대 호남학과 박사과정, 김태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여수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순사건위원회의 성과 공유와 함께 향후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을 진단한다는 구상이다.

14연대의 창설과 부대 운영 분석 및 일

제강점기 전남 동부지역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민족운동 양상 파악을 비롯해 여순사건으로 파괴된 여수 도시공간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주체들의 활동 속에서 도시 재건·개발을 진행했는지 역사적 맥 속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여수시, 9769명 94억원

여수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769명에 94억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15일까지 신청 당시 제출한 농가별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은 4752농가에 57억원을, 면적직불금은 5017농가에 37억원으로 총 9769명에 94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7~2019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하던 요건이 올해 삭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419농가 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급 기준은 소농직불금은 0.1ha~0.5ha이하 경작면적에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지급단가가 적용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대상자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1차 지급 과정에서 직불금 대상 농지 추가 승계자 및 계좌 오류자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급에 관한 문의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담배소매인 일제 정비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

여수시가 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1180여 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제정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청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은 200여개소로 앞서 여수시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비영업 중임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여수시는 담배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업소 간 거리 제한으로 인해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업 미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독거노인 가구 집수리 등 봉사 여수 광림동, 자원순환과 참여

여수시 광림동이 각종 쓰레기로 가득한 70대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했다.

13일 여수시 광림동에 따르면 대상가구는 관내 70대 독거노인 가구로 광적인 쓰레기 수집으로 인해 주택 내부가 수십 톤의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심한 악취와 벌레 등이 발생했다.

광림동은 시 자원순환과에 지원을 요청해 지난 10월과 11월 2차에 걸쳐 1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도배와 보일러 설치 등 최소한의 내부수리를 진행했으며, 전기보수공사(한길 전력)와 지붕 보수공사(여수라이온스클럽), 소규모집수리(쌍봉복지관), 냉장고와 전기밥통 후원(여수시노인복지관) 등도 실시했다.

광림동 정종인동장은 “다양한 기관 등 이웃들의 도움으로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따뜻한 방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 지 좀 더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외국어 원어민 수강생 모집 화상학습 수강생 22일까지

여수시는 오는 22일까지 ‘여수시 외국어 원어민 화상학습’ 수강생 47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53기 원어민 화상학습은 2024년 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4개 외국어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업은 원어민 강사 1명과 수강생 5명이 그룹을 이뤄 수준별 맞춤형 화상학습으로 진행되며, 주 2회(1일 45분) 또는 주 3회(1일 30분) 수업을 선택해 PC·모바일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홈페이지(cyberedu.yeosu.go.kr)’에서 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070-7439-4871) 또는 여수시 평생교육과(061-659-4725)로 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 원어민 화상학습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타 지자체와 다른 강점”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13일 여수시 광림동이 생활쓰레기로 가득한 70대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내년 3월까지 소장품전 ‘미시의 세계’ 개막

엑스포아트갤러리서30여점 지역 연고작가 작품 등 공개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내년 3월 10일까지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연계 전시인 여수시 소장품전 ‘미시의 세계’를 개최한다.

13일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여수시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작년부터 공모를 통해 수집한 작품 중 여수미술과 관계된 회화, 조각, 사진 등 30여 점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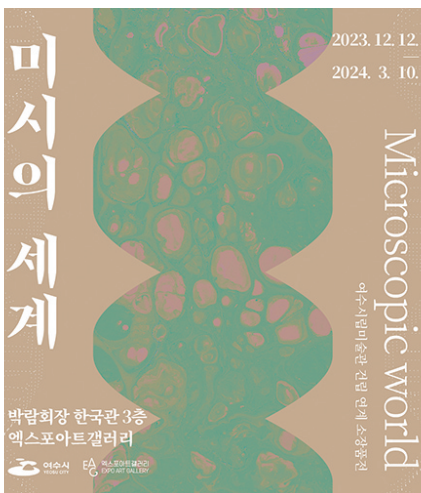
여수의 역사, 풍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여순사건과 연관된 평화주의의 이념에 따른 인권, 윤리적,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는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숙련도 평가

해양경찰연구센터(센터장 염규설)가 IIS 주관 ‘선박 및 항공기 연료유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최우수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IIS는 유류분야의 국제숙련도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매년 100여 종 유류제품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하며 평균 150개 이상의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박 연



여수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한 한국 근현대화단의 주요작가인 김홍식, 류인, 류경채를 통해 지역근현대미술사의 양상

을 밝힌다.

형제묘, 도성마을의 모습을 그린 동시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수의 현재를 조망하며 평화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인 담론을 다뤄봄으로써 현시대의 역할을 자문한다.

전시기간 중 15일 오후 4시에는 전시연계 행사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증식이 열리며, 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여수시 소장 작품 감상을 통해 여수가 지닌 산능선과 바다의 이야기, 파란의 역사, 지역주민들의 삶의 흔적들을 함께 경험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해양경찰연구센터, 연료유 최우수 시험기관 선정

료유 황 함량과 항공유의 입자분포도 측정 분야에 참가했다.

황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규제물질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입자분포도는 항공유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분석항목이다.

해양경찰연구센터는 연료유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관으로 공신력을

확고히 했다.

항공유 분석은 올해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과 동시에 최우수 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내외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염규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해양경찰 연료유 분석능력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유류분야 분석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